

코로나 국면 하의 중국 일대일로 전략 분석

이창주*

목 차

I. 서론

II. 일대일로 개념 정리 및 전략 분석

III. 코로나 국면 하에서의 일대일로 전략 분석

IV. 결론

* 이주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복단대 외교학 박사

I. 서 론

코로나-19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 공기 중 감염이 가능하며, 감염의 속도는 신속하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국지적 유행병은 동아시아, 유럽, 미국, 그리고 현재는 아프리카, 남미 지역까지 파죽지세로 감염 범위가 확대되며 3월 11일 세계적인 범유행(pandemic)으로 격상되었다.¹⁾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자연과학적 현상이지만 인류의 축적해온 사회과학적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체제, 국내정치 등 다층위의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가치사슬(GVCs)을 포함한 국제산업협력 구조, 거시경제, 미시경제 등의 경제분야,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인문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의 제범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그 현상을 분리해 분석해야할 정도로 코로나-19로부터 전대미문의 충격을 받고 있다. 세계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일대일로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관찰되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첫째,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중국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타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코로나-19는 팬데믹 단계로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셋째, 국경의 폐쇄가 이어지면서 세계화와 탈세계화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코로나-19의 특징과 변이 발생, 그리고 백신, 치료제 등이 부재한 상

1) WHO,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 11 March 2020", 11 March, 2020,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황에서 각종 돌발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의 사례²⁾처럼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국가도 언제든 재유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코로나 국면의 일대일로 전략, 특히 그 기능의 전환을 분석하기 위해 일대일로의 개념 정의와 기존의 일대일로 추진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의 전반적인 전환 추이 속의 일대일로를 먼저 평가하고, 코로나라는 ‘변수’가 ‘상수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대일로는 어떻게 발전해나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일대일로의 정치적 문제보다는 그 기능의 전환에 집중해 분석하고자 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국면 속에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과 미국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 압박이 심화되는 국제구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변수가 더해지며 향후 보호무역주의나 생산수단의 다원화 현상은 분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한과 후베이성에 대한 강한 봉쇄와 전국 의료진의 지원활동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기에 진입해 타 지역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를 토대로 국제연대를 강조하며 보건+경제협력의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감염 발생 우려로 비대면 경제(untact economy)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접촉의 증가, 빅데이터 및 AI를 포함한 스마트화, 로봇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이 복합적으로 엮인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협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런 새로운 전환기 속에 코로나 국면의 일대일로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싱가포르는 초기 ‘모범방역국’으로 평가 받았으나 이주노동자 감염이 확산되면서 4월 23일 기준 한국 확진자 수를 초과했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코로나19 환자, 인구 9배 한국보다 많아졌다”, 2020.04.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47700076?input=1195m>>,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II. 일대일로 개념 정리 및 전략 분석

1. 세계화, 연계성, 그리고 일대일로의 상관계 분석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동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실크로드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대일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가 등장하기까지의 세계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다음에 다뤄질 코로나-19 국면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은 크게 1) 초기 단계: 고대 실크로드~열강시대, 2) 전후 단계: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 GATT 시대, 3) 현대의 세계화: 냉전 종식 이후 WTO 체제 시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화’ 단계에서 주목할 변화가 있었다. 냉전종식 이후, 다양한 개발도상국들이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에 참여함에 따라, 세계화의 물결에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2001년 11월부터 시작한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무역자유화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선진국 표준의 세계화와 개발도상국 표준의 세계화 간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세계는 다양한 표준이 혼재된 형태로 양자 및 다자간 FTA, EU·ASEAN 같은 지역협력체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³⁾ 신자유주의를 통한 개방성 높은 세계화, 즉 선진국 표준의 세계화 물결 속에 1998년 동아시아경제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국제사회에는 개발도상국 표준의 세계화 요구에 부합한 연계성(Connectivity) 개념이 부상하게 된다.

3) 박경석, “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타결이 어려운가?: GATT 및 WTO 무역자유화 협상에서의 의사결정”, 무역학회지 2011 vol.36, 한국무역학회, 2011, 25쪽.

연계성(Connectivity)은 세계화 흐름의 4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연계성은 2009년에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인프라 건설 및 개선을 통해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Physical Connectivity), 무역 및 투자 편리화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장벽을 완화하여(Institutional Connectivity) 글로벌 경제협력의 단계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⁴⁾ 연계성의 개념은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 개선 요구가 수용된 새로운 개념의 세계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연계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였다. 당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세계경제성장률은 -0.1%를 기록했고, 선진국은 -3.3%,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했던 중국은 선진국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9.4%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⁵⁾ 다시 말해, 기존에 세계화의 표준을 이끌었던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했고, 새로운 세계화의 표준을 주장했던 중국 중심의 신흥국들이 선전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요구가 수용된 연계성 형태의 세계화 수요가 상승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 주도의 ‘금융’ 중심 세계화에서 신흥국 주도의 ‘공간’ 중심 세계화의 시대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바로 이런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연계성의 등장 속에 중국이 제안한 구상이자 전략이다.⁶⁾ 연계성은 ‘공간을 베이스로 한 자유무역지대’⁷⁾를 완성하며 서플라이

4) Haruhiko Kuroda,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09, p.203.

5) IMF 통계자료,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_WORLD/CHN>,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6) 이창주, 『일대일로의 모든 것』, 서해문집, 2017, 12쪽.

7) 상동, 47쪽.

체인, 밸류체인(GVCs)을 결합해 국제 물류 및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통합을 이끌어내는 통합이론의 성격이다. 중국은 이런 연계성을 ‘호련호통(互聯互通)’이라 칭했다. 연계성의 핵심개념인 시설련통(Physical Connectivity), 무역창통(Institutional Connectivity), 민심상통(People-to-people Connectivity)의 개념에서 정책구통(政策溝通)과 자금융통(資金融通)의 개념을 추가하면서 ‘5통(五通)’의 개념을 만들었다.⁸⁾ 시진핑은 2014년 11월 8일에 “일대일로가 아시아의 두 날개와 같다면 호련호통은 두 날개를 연결하는 혈맥과 같다”⁹⁾고 직접 발언하면서 일대일로와 연계성의 관계를 설명했고, 이를 통해 5통이 일대일로의 핵심 운영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세계화의 흐름은 1) 초기 단계, 2) 전후 단계, 3) 현대의 세계화(금융 중심의 세계화 시대)에서 다시 4) 연계성의 시대(공간 개발 중심의 세계화 시대)로 전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연계성은 세계화 물결의 새로운 트렌드였고, 이 트렌드에 중국이 ‘실크로드’라는 프레임 추가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 연계성, 일대일로의 관계를 선행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5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먼저 언급해본다.

8) 상동, 42-66쪽.

9) 袁勃、王吉全, “联通引领发展 伙伴聚焦合作—在‘加强互联互通伙伴关系’东道主伙伴对话会上的讲话”, 2014年11月09日, 人民日报,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109/c1024-25997464.html>>, (검색일: 2020년 4월 15일).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분석

일대일로 전략과 일대일로 구상은 다르다. 구상은 연계성의 층위에서 중국이 고효율의 공간 네트워크를 공동 건설하자는 개념이면, 전략은 중국의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대일로로는 ‘구상’ 개념과 ‘전략’ 개념이 혼재한 형태이다. 중국은 연계성의 핵심 개념인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플랫폼으로 삼아 중국의 해외진출 모델(走出去 전략), ‘중국제조 2025’ 등의 개념을 종합했다. 중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공급과잉 관련 산업분야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키고, 중국 국내외에서는 자체적인 R&D와 타국 기업을 M&A하면서 첨단산업분야로의 비교우위 상승을 준비해왔다.

일대일로 전략을 정리해보면, 먼저, 중국은 개발도상국가와의 인프라 건설을 통해 공간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연계성을 주도했다. 이 공간 네트워크에 중국 국영은행, 국유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우며 에너지 자원 확보, 건설시장 및 상품시장 진출을 통해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기존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달러화 외환보유액 1위였던 중국은 국부펀드 조성, AIIB 창립, 실크로드 기금 출자 등을 통해 달러화를 담는 포트폴리오의 다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본 자본을 과감히 일대일로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⁰⁾ 끝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공간 네트워크를 따라 연선 국가들과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하면서 물류의 효율성, 산업협력, 시장 접근성, 에너지자원을 포함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 엮어냈다.¹¹⁾

10) 周小川 “周小川：关于改革国际货币体系的思考”，人民日报(来源：中国人民银行网站)，<<http://finance.people.com.cn/GB/1040/59940/63710/9010905.html>>，(검색일：2020년 4월 25일)．

11) 이창주, “중국의 ‘일대일로’분석 및 시진핑 집권 2기 ‘일대일로’ 전망”, 정재홍 편 『시진핑 집권 2기의 이슈와 전망』 세종정책총서 2019-5, 2019, 127쪽.

중국은 이러한 일대일로 전략에 더해 중국 주도의 가치사슬 형성을 추진해왔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를 처음 제안하고 2015년 3월 28일에 중국 국무원 비준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 비전과 행동”¹²⁾이라는 공식문서를 발표함으로써 일대일로 추진의 방향을 명시했다. 중국은 동년에 “인터넷+(互联网+)”와 “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 등을 연달아 발표함으로써 본 계획들이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국 제2의 개혁개방이라는 노선에 따라 종합된 전략임을 시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국은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고¹³⁾ 질적 경제성장을 위한 ‘뉴노머(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고자 일대일로와 중국제조2025, 인터넷+ 등을 결합하면서 전통산업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제조업의 시대를 준비¹⁴⁾하며 중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이런 ‘중국제조2025’ 추진의 동향과 일대일로 가치사슬의 연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그림 1>은 2000년 당시 ICT 분야의 복합적 GVC 무역 네트워크이고, <그림 2>는 2027년 동 네트워크이다. 두 네트워크를 비교해봤을 때, 2000년에는 미국(USA)와 독일(DEU) 중심의 ICT 분야 복합적 가치사슬(2차례 이상의 무역 거래 이후 완성품)이 형성되어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JPN)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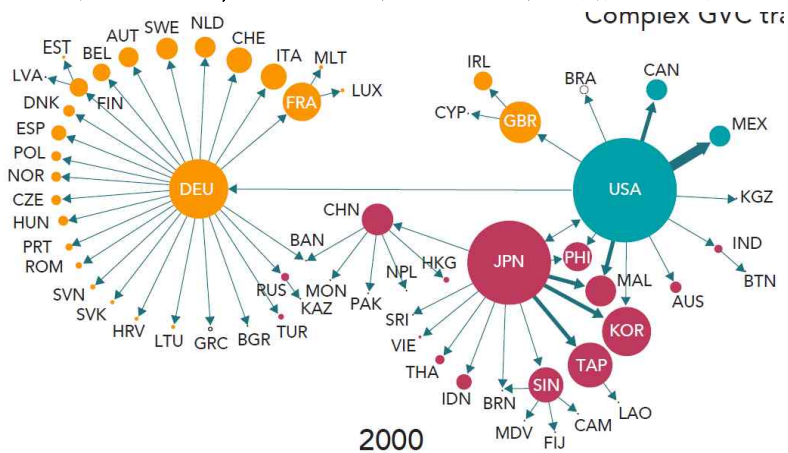
12) 中国中央人民政府门户网站, “经国务院授权三部委联合发布推动共建‘一带一路’的愿景与行动”, 2015年 3月 28日, <http://www.gov.cn/xinwen/2015-03/28/content_2839723.htm>, (검색일 2020년 4월 19일).

13) James McBride and Andrew Chatzky, “Is ‘Made in China 2025’ a Threat to Global Trad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9.05.13., <<https://www.cfr.org/backgrounder/made-china-2025-threat-global-trade?fbclid=IwAR2HKOIwHn0sFNJ3rYGHSljD1i16D5DjUchsAd91bW2LuSxUZCVK5z0SmmY>>, (검색일 2020년 4월 19일).

14) 조상래, “[조상래의 대국굴기 #2] 中 2018년까지 전국 28개 ‘쌍창(双创)’ 시범기지 만 든다”, China Trend, Platum, 2016.5.30., <<https://platum.kr/archives/60395>>, (검색일 2020년 4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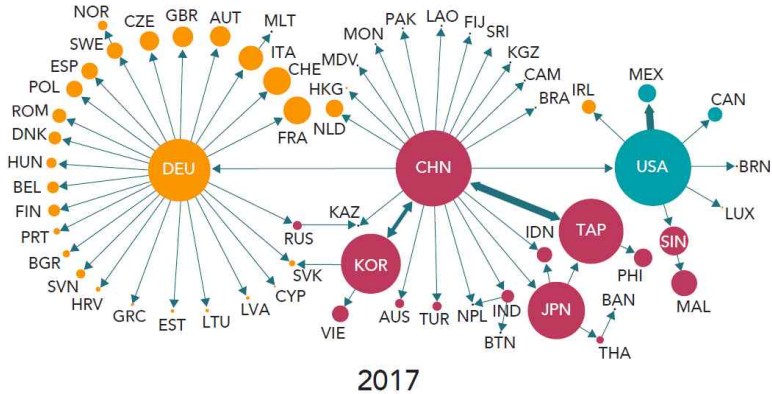
치사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7에는 중국(CHN)이 독일과 미국의 ICT 분야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허브의 크기도 대등하게 확대된 상태이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ICT 가치사슬 상에서 일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는데 비해 중국이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KOR)과 대만(TAP)이 ICT 분야의 기술발전과 함께 중국-한국-베트남, 중국-대만-필리핀의 가치사슬이 축을 이루고,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중국과 밀접하게 ICT 가치사슬 분야의 연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관련 산업에서 중간재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화웨이, 샤오미와 같은 ICT 기업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¹⁵⁾ 요컨대, 중국은 이런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를 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에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 지대’ 건설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더하며 종합 전략을 설계했다.

<그림 1> 2000년, ICT 분야에서 GVC 공급허브(복합 GVC 기준)



15)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2019, p.30

<그림 2> 2017년, ICT 분야에서 GVC 공급허브(복합 GVC 기준)



2017
 <그림 1, 2>의 원출처: Meng et al. (2018) based on the UIBE GVC indexes derived from the ADB 2018 ICIO table., 재인용: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2019, p.29

3. 일대일로 현황과 미중관계

1) 글로벌 단위의 일대일로 사업 현황

일대일로는 상술하였듯이 2008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반영한 ‘연계성’의 출현과 신흥국의 도약, 그리고 중국의 뉴노머 시대를 대비한 전략 수립 등이 맞물리면서 등장했다. 또한, 연계성과 중국의 중합국가전략이 혼재된, 다시 말하면 구상과 전략이 혼재된 형태로 일대일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중국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말을 기준으로 중국은 138개국, 30개 국제조직 등과 200개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 문건(MOU 포함)을 체결한 상황이다.¹⁶⁾ 대륙별 상황을 보면, 44개의 아프리카 국가, 37개의 아시아 국

16) 中国一带一路网, “已同中国签订共建“一带一路”合作文件的国家一览”, 2019-04-12, <<https://www.yidaiyilu.gov.cn/gbjg/gbgk/77073.htm>>, (검색일: 2020년 4월 22일).

가, 27개의 유럽 국가, 11개 오세아니아 대양주 국가, 8개 남미국가, 11개 북미 국가들과 일대일로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있다.¹⁷⁾ 이렇듯 일대일로는 세계적 범위로 그 협력 사업이 진행 혹은 계획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2013년 처음 일대일로를 제안했을 때 ‘서진(西進)’이나 ‘남하(南下)’를 위한 연계성 전략으로 계획했으나, 2015년 3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비전과 행동」이라는 정부 공식 문서에서 “고대 실크로드 연선의 국가나 국제단체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경우 일대일로에 참여가 가능하다”¹⁸⁾는 문구에 따라 세계 다른 대륙(미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주 등) 국가들도 일대일로에 협력하고자 했다. 중국은 심지어 러시아와 ‘빙상 실크로드’라는 명칭으로 북극해 항해노선 개발과 야말·ARCTIC-LNG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주변국과의 연계성과 산업협력을 위한 가치사슬을 종합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중국의 국유기업의 진출도 활성화된 것이다. 중국은 특히 유라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육로 연결과 중국 연해~남중국해~남태평양~인도양~지중해~대서양~북해, 북극해 등으로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를 각 라인을 종합하며 연계성을 실현해가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유럽까지의 고대 실크로드 라인을 척추로 삼아 해운노선의 각 항만들을 연결하여 유라시아 전반의 항만~배후지를 연계하는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인프라와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은 중국의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을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이

17) 상동.

18) 中国中央人民政府门户网站, "经国务院授权三部委联合发布推动共建‘一带一路’的愿景与行动", 2015年 3月 28日, <http://www.gov.cn/xinwen/2015-03/28/content_2839723.htm>, (검색일 2020년 4월 19일).

나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러시아 등의 다른 선진국, 신흥국 등의 연계성 전략과 맞물리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미중관계 속의 일대일로

중국은 이렇듯 연계성이라는 틀 속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전개해나갔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종합 전략을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전략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그 성격이 발전되어왔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처음 발표한 것은 2013년이었지만 중국 주도의 연계성 전략의 수립은 이미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부터 논의되어 왔다.¹⁹⁾ 오바마 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2010년 3월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합류했고, 2013년 7월에 일본이 이어 합류함으로써 태평양 경제권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권이 협상되기 시작했다.²⁰⁾ WTO 안의 WTO라는 기치로 가입국 간에 높은 경제 개방도를 표준으로 삼는 TPP가 협상이 진행되었고, 12개 국가들 간에 중국을 능가하는 TTP 벨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TPP는 2015년 11월에 12개국 간에 체결되었으나 2016년 국회 비준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등장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²¹⁾

트럼프 미 정권의 등장은 기존의 오바마 정권의 대중 정책과 그 성

19) 周小川 “周小川：关于改革国际货币体系的思考”，人民日报(来源：中国人民银行网站)，<<http://finance.people.com.cn/GB/1040/59940/63710/9010905.html>>，(검색일：2020년 4월 25일).

20)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694,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by Ian F. Fergusson, Mark A. McMinimy, Brock R. Williams, March 20 2015, p.3.

21) 연합뉴스, <세계 최대 무역협정 TPP 끝내 폐기…… ‘오바마, TPP 비준 추진 포기’>, 2016년 11월 1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2/0200000000AKR20161112038500009.HTML?input=1195m>>, (검색일 2016년 11월 13일).

격이 달랐다. 오바마 정부는 동맹국들과의 자유무역협력 강화와 미 주도의 밸류체인 강화를 토대로 중국의 투명도와 개방도를 높이는데 그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역전쟁을 전개하는 한편 동맹국들에게도 통상분야 압박을 동시에 전달하는 형태의 대외정책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일대일로’와 ‘중국제조2025’에 대해 혹평을 내리기도 했다. ‘일대일로’에 대한 혹평을 살펴보면, 펜스 미 부통령이 2018년 10월 4일 연설한 내용에 여실히 담겨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빛의 외교(Debt diplomacy)”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수 억달러의 인프라 건설 관련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은 불투명하게 계약된 상황에서 관련 이익은 압도적으로 중국에게 흘러간다”는 평가를 했다.²²⁾ ‘중국제조2025’에 대한 혹평을 보면, 2018년 4월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중국제조2025가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지위를 뒤흔드는 가공할 전략이라 평가했고²³⁾, 동년 12월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따라와 미국, 일본, EU의 미래를 훔치려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²⁴⁾ 트럼프 미 정부는 중국의 이런 일대일로 전략을 정조준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안하며 대중 압박 전략을 수립하

22) The White House,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2018.10.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vice-president-pence-administrations-policy-toward-china/>>, (검색일: 2020년 4월 12일).

23) AFP, “US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calls China 2025 plan ‘frightening’”, 2018.10.4.
<<https://www.financialexpress.com/world-news/us-commerce-secretary-wilbur-ross-calls-china-2025-plan-frightening/1144624/>>, (검색일: 2020년 4월 12일).

24) Alex Lockie, “Trump said Xi Jinping abandoned a signature economic initiative because he told him it was insulting”, Business Insider, 2019.6.10., <<https://www.businessinsider.com/trump-xi-jinpings-made-in-china-2025-insult-and-cancelled-2019-6>>, (검색일: 2020년 4월 12일).

기에 이른다.

미국은 미중 양자관계에서 관세인상 압박을 통한 무역전쟁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미국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 투자하게 만드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2025’와 관련해서는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을 통해 <그림 2>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약화 혹은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오바마 정부보다 보다 더 직접적인 대중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대중 압박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통상 압박, 미국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회의론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중국이 국제사회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점은 추가로 주목해볼 부분이다.

III. 코로나 국면 하에서의 일대일로 전략 분석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이렇듯 연계성이라는 새로운 세계화의 물결과 이런 조류 속에 중국이 실크로드 프레임을 더해 종합전략으로서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진출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노선을 타고 확산되었다. 일대일로의 ‘5통’ 중에 ‘민심상통(People-to-people Connectivity)’은 사람과 사람의 감염 위험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체되었다. 인적교류, 물류, 산업협력 등의 가치를 높이던 일대일로의 길은 국경의 차단과 함께 사실상 모두 봉쇄되었다.

IMF는 2020년 4월에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전망보고서의 시작에서 “대봉쇄(Great Lockdown)”라는 단어로 현 시기를 표현했다.²⁵⁾ 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수 없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코호트 조치’ 등의 생소했던 용어가 일상이 주변에 일상처럼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는 일반인들이 향유하던 일상과 경제활동을 마비시켰다. 이제 일대일로뿐만 아니라 세계화마저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에 ‘탈세계화(Deglobalization)’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연계성, 일대일로는 물론 글로벌밸류체인 역시 ‘대봉쇄’되고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선부른 것이다. 여전히 다양한 돌발변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세계화는 기존의 대면(face-to-face) 인적교류 방식에서 방역+경제, 비대면 온라인화, 스마트화, 무인 로봇형 경제 등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현재 추이와 발전 방향을 분석해야 한다.

25)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April 2020, P.V.

1. 코로나-19 국면의 세계화와 세계경제전망 분석

1) 코로나-19 국면의 세계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본격화되던 2020년 1~2월에 중국 우한이 봉쇄되고 중국 전국의 통행이 제한되면서 중국 경제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중국 공장 운영도 중단되면서 글로벌밸류체인에서 중간재 공급이 늦어졌는데, 코로나 방역 위기와 함께 생산라인을 걱정하는 상황도 함께 발생했다. 희소한 자원을 재고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고안된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겼다. 이 부분만 두고 보면, 코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화는 정지되고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과 경제 운영 회복 기간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은 현지 의사들의 제보와 여러 징후들이 이미 있었지만, 준비 없이 기습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초기 대응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겹치면서 중국 유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그 피해가 가속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첫 발병지였던 중국의 상황은 더 급박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사스, 메르스와는 다르게 코로나-19는 잠복기간, 재양성, 공기 중 감염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처음 접했던 중국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코로나-19 초기에는 코로나의 정보 부재, 정보의 비대칭성의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때 필요한 매뉴얼도 부재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대봉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리해보면, 초기의 코로나-19 국면은 급속적인 발병에 따른 정보 부재로 단방향 게임의 상태였다면, 팬데믹이 선언된 현재의 코로나 국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면서 방역 방법, 의료시스템 관리, 진단키트 활용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 즉 반복적 상호작용에 의한 쌍방향 게임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 국면에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디커플링시키는 작업보다 비상시에 ‘대붕쇄’의 상황에 봉착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다원화 및 일정 정도의 재고의 확보, 또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운영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국제적 연대 방안 등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임상실험까지 마친다고 그래도 기존 형태의 세계화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방역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국제경제협력의 모델이 추진되며 역시 뉴노멀의 세계화를 형성해낼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건+경제 모델의 확대, 즉, 국제 의료부품, 바이오 의약개발, 감염내과와 같은 의료시설 연계, 의료제도 관련 국제레짐 등의 보건 시스템과 각종 인프라와 공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지역 연계, 둘째, 빅데이터에 의한 감염 관련 정보, 생산수단 및 재고에 대한 공유, 셋째, AI와 로봇틱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완전 자동화, 무인화 플랫폼이 확대,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 형성, 넷째,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과 국제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의 세계화 모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비대면 형태의 글로벌밸류체인(GVCs)로 그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화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에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했을 때, 한국 정부가 택한 것은 관련 지역을 봉쇄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고강도의 사회

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도 전국의 의료인원, 의료시설, 방역물품 등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음압병실에 대한 데이터 관리, 마스크 관리, 진단키트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한국 일본에서는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심리를 축소시켜 나갔다. 마찬가지로, 향후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정점을 찍게 되고 안정세로 돌아설 경우 각 국가들이 한 국가에 대한 봉쇄를 결정하기보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스마트한 연계에 대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유발 하리리는 “인류 최악의 수는 분열이며, 고립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으며,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²⁶⁾고 말한 바 있는데 결국 스마트하고 기동력 있는 연결 및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2) 코로나-19 국면의 세계경제전망 분석

이런 새로운 세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재 제공과 국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이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강대국의 역할이다. 이와 관련해, 헨리 키신저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마샬플랜과 맨해튼 프로젝트를 교훈 삼아 국제사회에서 3가지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 코로나로부터 글로벌 회복력 구축, 2) 상처를 치유하며 세계경제변영 추구, 3) 자유로운 세계질서 원칙 수호 등이다. 세계대전 이후 전후질서 수립, 미중 수교, 냉전의 종식 등을 경험한 외교실무자의 지혜이다. 그러나 당시

26) 유발 하리리 CNN 인터뷰, “Yuval Harari: This is the worst epidemic in 'at least 100 years'”, <<https://edition.cnn.com/videos/tv/2020/03/15/yuval-noah-harari-amanpour-cnn-coronavir-us.cnn>>, (검색일: 2020년 4월 25일).

전후 국면이나 냉전 종식 시기와는 다르게 현재는 군사력 분야에 있어 미국의 단극구조, 경제력 분야에서는 다원화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할 때 최근 발생한 미증유의 코로나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공공재를 제공하며 세계화의 방향을 추동할 경제대국들의 경제현황과 향후 전망일 것이다.

<표 1> 2020-2021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단위: %)

		2019	2020	2020 ¹	2021
세계 전체		2.9	-3.0	-6.3	5.8
선진국 전체		1.7	-6.1	-7.7	4.5
선진국	미국	2.3	-5.9	-7.9	4.7
	유럽연합 ²	1.7	-7.1	-8.7	4.8
	독일	0.6	-7.0	-8.1	5.2
	프랑스	1.3	-7.2	-8.5	4.5
	이탈리아	0.3	-9.1	-9.6	4.8
	스페인	2.0	-8.0	-9.6	4.3
	영국	1.4	-6.5	-7.9	4.0
	일본	0.7	-5.2	-5.9	3.0
	한국	2.0	-1.2		3.4
신흥국+개발도상국 전체		3.7	-1.0	-5.4	6.6
BRICS	중국	6.1	1.2	-4.8	9.2
	인도	4.2	1.9	-3.9	7.4
	러시아	1.3	-5.5	-7.4	3.5
	브라질	1.1	-5.3	-7.5	2.9
	남아공	0.2	-5.8	-6.6	4.0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 April 2020 자료 토대로 편집

¹ 단위: %p, 2020년 1월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의 2020년 예상 성장률에서 동년 4월 보고서의 2020년 예상 성장률의 격차

²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표 1>은 2020년 4월에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전망 통계이다. 본 통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주의할 점이 있다. 코로나-19는 그 감염의 속도와 규모 면에서 언제든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 국가별

감염 정보의 투명성에 따라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표는 2020년 내에 코로나 국면이 안정될 것을 전제로 2021년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계산했다는 점이다. IMF 역시도 이런 가변성 강한 국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다시 세계경제전망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고 관련 표가 주는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3.0%, 선진국은 -6.1%,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전망된다. 본 수치만 보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보다 선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코로나-19 실제 상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표 1>에서 더 주목할 점은 미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5.9%로 전망되고, 중국의 동년 경제성장률은 1.2%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비록 미진한 초기대응, 불투명한 정보 관리 등으로 세계적 비판에 직면했지만, 우한·후베이성을 강하게 압박함과 동시에 중국 역시 전국 단위의 의료지원이 이어지면서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주, 유럽 등의 타 지역 국가들의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 공장가동과 보복적 소비 트렌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세계1위를 기록한 상황이다.²⁷⁾ 현 시점에서 재유행의 변수를 배제하고 봤을 때, 중국이 빠른 회복력으로 안정적 경제운영을 진행할 여력이 더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27) 2020년 4월 27일 오전 기준으로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943,865명으로 1위, 중국은 83,909명으로 9위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진단키트 수량 확보 및 정확도, 양성 여부 검사수 정도에 따라 실제 확진자 수의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 John Hoopkins 대학 실시간 자료,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검색일: 2020년 4월 27일).

헨리 키신저의 바람과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적인 국제사회의 회복력 확보 및 공동번영보다는 미국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세계 공공재의 제공과 바이러스 공동 대응의 레짐 구축보다는 WHO에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발언했다.²⁸⁾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의 상황에 주목해야 할 다른 변수도 있다. 첫째,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국내정치적 변수로 코로나의 정치화,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미국 경제의 악화 등의 변수가 있다는 점이다.

아직 예단하기에 이르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망치와 현재의 국내외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봤을 때 세계 공공재의 제공은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원인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코로나-19 시기 일대일로 추진 전망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는 이른바 ‘원죄론’과 아직 증명되지 않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설’ 등은 물론 중국에게 큰 이미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 중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다른 국가들보다 조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 코로나-19에 관한 다양한 정보, 코로나-19 방역 관련 생산수단의 조기 확보 등은 중국의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또한, 방역+경제를 실현할 일대일로 모델 개발과 함께 경제진작을 위한 중국판 뉴딜정책의 재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또한, 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의 전환도 예상된다.

28) The Guardian, “First Thing: Who stops funding WHO in a pandemic? Donald Trump, that’s who”, 15 April 2020,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0/apr/15/first-thing-who-stops-funding-who-in-a-pandemic-donald-trump-thats-who>>, (검색일: 2020년 4월 25일).

1) 코로나-19 국면의 일대일로 현황 분석

코로나-19 국면의 일대일로 현황은 2020년 1분기의 일대일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일대일로는 ‘공간을 베이스로 한 자유무역지대’ 공동 건설, 즉 연계성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제조2025’ 전략과 함께 중국 주도의 밸류체인 형성의 연계성 모델을 결합한 국가종합전략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일대일로는 미중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그 발전의 방향은 중국 지도부에 의해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국면의 일대일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일대일로 모델에서 ‘건강 실크로드(健康絲綢之路)’의 모델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건강실크로드는 2017년 시진핑 주석이 르네와를 방문하면서 WHO의 일대일로 참여를 요청하면서, 중국-WHO 간 보건영역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²⁹⁾ 중국은 국내의 코로나 국면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건강실크로드를 더 부각시키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긴급 재난지역에 의료팀과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020년 4월 10일 대변인 발언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이미 127개국과 4개의 국제기구에 의료용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 등의 물자를 원조했고, WHO에 2,000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11개국에 13차례 의료 전문가를 파견했다”³⁰⁾고 밝혔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중

29) 人民网—人民日报, ““健康丝绸之路”为生命护航——抗击疫情离不开命运共同体意识”, 2020年03月24日, <<http://theory.people.com.cn/n1/2020/0324/c40531-31645276.html>>,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30) 中国外交部, “2020年4月10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2020-04-10,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768268.shtml>,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국해관 자료를 토대로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국은 102억 위안의 방역물자를 수출했다”³¹⁾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초기 위기 극복 이후 방역물품의 대량생산을 성공했고 방역물품의 공공재를 원조와 수출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신형 인프라(新型基础设施) 건설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했고, 지능형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며 일대일로 사업에 적용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발개위는 3개 분야의 신형 인프라 건설 진행 및 투자를 추진 중이라면서, 1) 정보분야 인프라: 5G, 사물네트워크 공업용 인터넷, 위성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데이터 센터, 2) 융합형 인프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 기존의 교통인프라와 융합, 예를 들어 지능형 교통인프라, 전기 분야 스마트 그리드 등, 3) 혁신형 인프라: 과학연구, R&D, 상품연구제작 등 분야에 필요한 인프라 분야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³²⁾

셋째, 중국-유럽 대륙열차를 안정적으로 운행하면서 방역물품을 운송했다. 중국철로(中國鐵路)의 위챗보도 내용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 중국-유럽 대륙열차는 1,941열 운행했고, 17.4만 TEU의 컨테이너를 발송했는데, 이는 각각 동기대비 15%, 18%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중국-유럽 대륙화물열차를 운행하는 중국 도시 내 기업 및 공장들은 이미 생산을 회복해 대륙 열차를 안정적으로 이용 중이다. 중국은 또한 유럽행 대륙열차를 통해 44.8만개, 1,440톤의 방역물품을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에 발송했다.³³⁾ 항공물류보다 저렴하고, 해운물

31) 상동.

32) 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发改委举行4月份例行新闻发布会”, 2020-04-20, <<http://www.scio.gov.cn/xwfbh/gbwxwfbh/xwfbh/fzggw/Document/1677563/1677563.htm>>,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33) 中国一带一路网, “逆‘势’增长, 中欧班列成为特殊时期的‘外交官’”, 2020-04-23, <<https://www.yidaiyilu.gov.cn/xwzx/gnxw/123721.htm>>,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류보다 빠른 대륙열차의 장점을 이용하면서 일대일로의 유라시아 연결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넷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 중 재정 위기에 빠진 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대상국가가 스리랑카이다. 2020년 3~4월 사이 스리랑카에 진출한 중국 국유기업은 코로나 방역 관련 물품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5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허용했다.³⁴⁾ 중국은 여전히 일대일로 연선 내 인프라 건설 사업 투자를 진행하며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국면으로 대규모의 개발도상국이 차관 및 원조를 희망하게 될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의 제한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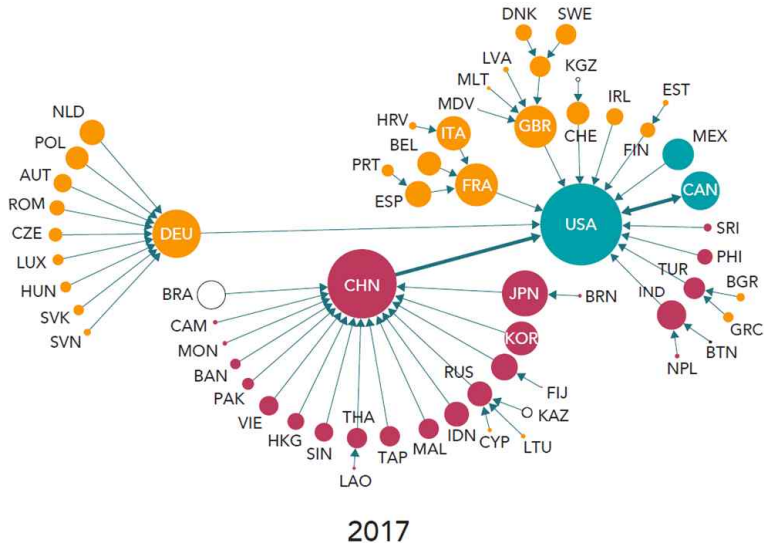
중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변수와 일대일로 연선국의 대규모 차관 요청에 따른 재정악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형 인프라 건설을 통한 “보건+”의 일대일로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기존의 연계성 모델도 유지하면서 일대일로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2) 코로나-19 국면의 중국 주도 일대일로 가치사슬

코로나-19 국면에서 ‘탈세계화’의 논쟁과 함께 ‘가치사슬(Value Chain)’의 와해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대일로 역시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가치사슬을 분석해보면 중국-선진국 간의 가치사슬 라인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더라도 동아시아 내 중국을 허브로 한 가치사슬은 견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34) Rathindra Kuruwita, “China to the Rescue in Sri Lanka”, The Diplomat, April 15,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4/china-to-the-rescue-in-sri-lanka/?fbclid=IwAR2nJERU29vXZh-5khHKgV1puVWwVyyGRIYh4hfi1E5IK6A52s48kbignvI>>,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그림 3> 2017년, 재화 및 서비스 분야에서 GVC 수요허브(심플 GVC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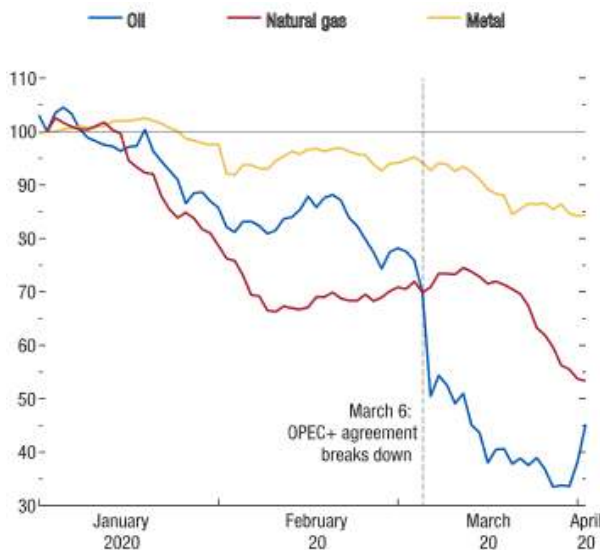


<그림 3>의 원출처: Meng et al. (2018) based on the UIBE GVC indexes derived from the ADB 2018 ICIO table., 재인용: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2019, p.31.

그 이유로는 첫째, 이미 공고화된 중국 허브형 동아시아 GVC 네트워크를 디커플링하기에 많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림 3>은 재화와 서비스 전체 영역에서 심플 GVC(한 차례 이동으로 상품 완성)의 수요 허브 네트워크를 보여준 것이다. 우선, 미국(USA)은 미주, 유럽, 아시아 전 대륙으로부터 가치사슬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독일(DEU)은 유럽 내 수요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CHN)의 동아시아 내 가치사슬 수요허브로서의 위치이다. 중국은 2009년에 일본의 GDP를 추월하면서 미국에 이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했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생산능력, 그리고 13억 인구 내수시장이라는 소비능력으로 동아시아 내 수요 허브

의 위치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미중 양국의 높은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해왔다. 코로나-19 국면에 미국-중국, 독일-중국 등의 선진국 간의 관계에 느슨함이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중국을 허브로하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 내 중국의 주변국들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또한, 가치사슬 분야의 협력을 끊고 디커플링을 진행할 경우 그와 관련된 매물비용의 발생, 신규 투자 진행, 그리고 시장접근성 제한 등의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중국의 현재 일대일로 추진 방향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방역 국제협력 플랫폼을 토대로 기업인 간의 방역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기업과 공장 이동 및 근무 중에 단기간 진단키트의 활용 및 방역 시스템 강화로 동아시아 가치사슬을 와해했을 때의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2020년 1분기 원자재 가격 변화 추이(2020년 1월 2일=100)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 April 2020 자료

둘째,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각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위기가 상승해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 일수록 중국과의 무역이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제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는 IMF의 자료로 1분기 코로나-19 국면에서 원유, 천연가스, 금속 원자재의 가격하락 폭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원유의 경우 OPEC의 감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유가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경제회복기간에 오히려 자원수출중심의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인한 가치사슬의 공고화, 여기에 관련 자원의 운송에 있어 중국-통과국 간의 인프라 건설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3) 코로나-19 국면의 일대일로 발전 제한요소

코로나 국면에서 일대일로가 ‘건강실크로드’, 지능화·자동화 인프라 구축 등을 추가한 연계성의 명맥을 이어간다고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발전 제한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미국의 집중 견제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문제가 악화되면서 트럼프 정부는 방역과 함께 이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중국이 초기에 코로나-19 정보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대선 일정과도 겹치면서 미국의 국내문제가 외교문제로 연결되는 장면이 다수 연출되고 있는데, 중국을 목표로 한 외교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인 래리 커들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게 이전 비용 세금 공제 100%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보다 공격적으로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³⁵⁾

35) 한국경제, ““순식간에 헤게모니 잃는다”.美·中, 포스트 코로나 ‘패권 장악’ 혈안”,

둘째,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한 바이러스이고, 이로 인해 경제 피해를 입었다는 데 중국 소송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미주리주, 호주, 영국의 한 학회 등은 중국보건당국, 중국과학원 등을 망라해 국제 소송전을 공세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그 배상금액만 3경에 달한다.³⁶⁾ 중국에 대한 이런 국제소송전은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판결 여부나 그 금액과는 별개로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대일로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문제이다. 금융 투자 및 차관을 제공한 국가의 재정악화의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 그리고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이 대규모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 국내 자체적으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의 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50개의 개발도상국이 중국에 진 빚이 50개국 GDP 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 평균 1%에서 2017년 평균 15%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중국은 코로나 이전에도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대상국의 GDP 내 중국 차관 비중을 높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빚들이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렇듯 트럼프, 코로나, 금융 이슈 등의 제한 요소로 인해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20.04.26., <<https://news.v.daum.net/v/20200426175202848>>,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36) MBC, “'코로나19 배상하라'...중국에 줄소송”, 2020-04-25,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5102_32524.html>,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37) Sebastian Horn, Carmen Reinhart, Christoph Trebesch, “China’s Overseas Lending”, KIEL Working Paper No. 2132, JUNE 2019, p.4.

IV. 결 론

코로나-19는 세계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은 회복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세계화의 종식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이 와해되고 각 국가는 리쇼어링을 권장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 했던 코로나-19도 점차 그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대일로 이전에 연계성이 있다. 연계성은 공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며 재화, 자본,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해 지역통합의 흐름을 이루고자하는 공간 베이스의 세계화이다. 이런 연계성의 틀 속에서 일대일로는 연계성과 결을 함께 하는 ‘구상’과 중국의 국가이익 추구 모델로서의 ‘전략’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연계성과 일대일로는 코로나 국면 속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하며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제는 길만 열리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아니라 길 위에 보건의료 관련 시설과 제도를 마련하는 “보건+경제협력”의 모델을 구축해야하는 시대이다.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스마트화 일대일로 모델 등으로 그 진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초반기에 빠른 회복세를 달성하고 ‘건강실크로드’와 지능화, 자동화, 비대면형태의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단단한 동아시아 역내 밸류체인을 토대로 중국은 다시 기존의 일대일로로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 미중 양국의 갈등 격화, 중국 내 코로나 발원에 따른 이미지 실추 및 소송전 조짐 등은 제한 요소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이창주. 『일대일로로의 모든 것』. 서해문집. 2017

이창주. “중국의 ‘일대일로’ 분석 및 시진핑 집권 2기 ‘일대일로’ 전망.” 정재홍 편
『시진핑 집권 2기의 이슈와 전망』 세종정책총서 2019-5, 2019. 135-181
쪽.

박경석. “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타결이 어려운가?: GATT 및 WTO 무역자유
화 협상에서의 의사결정”. 무역학회지 2011 vol.36. 한국무역학회. 2011.

<국외 문헌>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2019.

Haruhiko Kuroda.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09.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694.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by Ian F. Fergusson. Mark A.
McMinimy. Brock R. Williams. March 20 2015.

Sebastian Horn. Carmen Reinhart. Christoph Trebesch. “China’s Overseas Lending.” KIEL
Working Paper No. 2132. JUNE 2019.

<인터넷 자료>

조상래. “[조상래의 대국굴기 #2] 中 2018년까지 전국 28개 ‘쌍창(双创)’
시범기지 만든다.” China Trend. Platun. 2016.5.30.
<<https://platun.kr/archives/60395>>. (검색일 2020년 4월 19일).

연합뉴스. <세계 최대 무역협정 TPP 끝내 폐기…… ‘오바마, TPP 비준 추진 포기’>. 2016년 11월 1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2/0200000000AKR20161112038500009.HTML?input=1195m>>. (검색일 2016년 11월 13일).

한국경제. “‘순식간에 헤게모니 잃는다’..美·中, 포스트 코로나 ‘패권 장악’ 혈안.” 2020.04.26. <<https://news.v.daum.net/v/20200426175202848>>.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연합뉴스. “싱가포르 코로나19 환자, 인구 9배 한국보다 많아졌다”. 2020.04.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47700076?input=1195m>>.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MBC. “‘코로나19 배상하라’…중국에 줄소송.” 2020-04-25.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5102_32524.html>.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April 2020.

WHO.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 11 March 2020.” 11 March. 2020.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James McBride and Andrew Chatzky. “Is ‘Made in China 2025’ a Threat to Global Trad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9.05.13. <<https://www.cfr.org/background/made-china-2025-threat-global-trade?fbclid=IwAR2HKOIwHn0sFNJ3rYGHSljD1i16D5DjUchsAd91bW2LuSxUZCVK5z0SmmY>>. (검색일 2020년 4월 19일).

IMF 통계자료.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CHN>.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The White House.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2018.10.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vice-president-pence-administrations-policy-toward-china/>>. (검색일: 2020년 4월 12일).

AFP. “US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calls China 2025 plan ‘frightening’.” 2020. 4. 12.
<<https://www.financialexpress.com/world-news/us-commerce-secretary-wilbur-ross-calls-china-2025-plan-frightening/1144624/>>. (검색일: 2020년 4월 12일).

Alex Lockie. “Trump said Xi Jinping abandoned a signature economic initiative because he told him it was insulting.” Business Insider. 2019.6.10.
<<https://www.businessinsider.com/trump-xi-jinpings-made-in-china-2025-insult-and-cancelled-2019-6>>. (검색일: 2020년 4월 12일).

The Guardian. “First Thing: Who stops funding WHO in a pandemic? Donald Trump, that’s who.” 2020. 4. 15.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0/apr/15/first-thing-who-stops-funding-who-in-a-pandemic-donald-trump-thats-who>>. (검색일: 2020년 4월 25일).

Rathindra Kuruwita. “China to the Rescue in Sri Lanka.” The Diplomat. April 15,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4/china-to-the-rescue-in-sri-lanka/?fbclid=IwAR2nJERU29vXZzh-5khHKgV1puVWwVyyGRIYh4hfi1E5IK6A52s48kbignvI>>.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Yuval Harari: This is the worst epidemic in 'at least 100 years'.”
<<https://edition.cnn.com/videos/tv/2020/03/15/yuval-noah-harari-amanpour-cnn-coronavir.us.cnn>>. (검색일: 2020년 4월 25일).

John Hoopkins 대학 실시간 자료.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검색일: 2020년 4월 27일).

袁勃, 王吉全. “联通引领发展 伙伴聚焦合作—在‘加强互联互通伙伴关系’东道主伙伴对话会上的讲话”. 2014年11月09日. 人民日报.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109/c1024-25997464.html>>, (검

색일: 2020년 4월 15일).

周小川. “周小川：关于改革国际货币体系的思考.” 人民日报(来源：中国人民银行网站).
<<http://finance.people.com.cn/GB/1040/59940/63710/9010905.html>>.
(검색일: 2020년 4월 25일).

中国中央政府门户网站. “经国务院授权三部委联合发布推动共建‘一带一路’的愿景与行动.” 2015年 3月 28日.
<http://www.gov.cn/xinwen/2015-03/28/content_2839723.htm>. (검색일: 2020년 4월 19일).

中国一带一路网. “已同中国签订共建“一带一路”合作文件的国家一览”.
2019-04-12. <<https://www.yidaiyilu.gov.cn/gbjg/gbgk/77073.htm>>. (검색일: 2020년 4월 22일).

中国一带一路网. “逆“势”增长，中欧班列成为特殊时期的“外交官”.” 2020-04-23.
<<https://www.yidaiyilu.gov.cn/xwzx/gnxw/123721.htm>>.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发改委举行4月份例行新闻发布会”. 2020-04-20.
<<http://www.scio.gov.cn/xwfbh/gbwxfbh/xwfbh/fzggw/Document/1677563/1677563.htm>>.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中国外交部. “2020年4月10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2020-04-10.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768268.shtml>.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人民网—人民日报. ““健康丝绸之路”为生命护航——抗击疫情离不开命运共同体意识.” 2020年03月24日. <<http://theory.people.com.cn/n1/2020/0324/c40531-31645276.html>>. (검색일: 2020년 4월 26일).